

원저 () 증례보고 (o)

제목

폐절제술 후 증후군 환자 1 예 보고

소속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,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

저자

홍영주, 장은영, 한석주

발표자: 홍영주

책임저자: 한석주

초록

(배경) 폐절제술 후 증후군(Postpneumonectomy syndrome)은 폐절제술 후 매우 드문 합병증 중 하나로 성인에서보다 소아에서 조금 더 흔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. 폐절제술 후 증격동이 빈 흉강 내로 이동하면서 남아있는 반대측 주 기관지가 눌리고, 폐쇄성 증후군으로 인해 반대편 폐가 과팽창되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. 최근 흉강 내 인공물질 삽입술이 이러한 환자에서 치료뿐 아니라 예방목적으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. (증례) 재태기간 34 주 2180g 으로 태어난 남자 환아로, 출생 후 타 병원에서 식도폐쇄 진단 후 교정술 시행하였다. 수술 후 식도 조영술에서 문합부 유출 소견 의심되어 본원으로 전원 되었고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문합부 유출이 아닌 식도폐 소견 보여 식도에 연결된 우측 폐 하엽 절제술 시행하였다. 수술 12 일 쯤 식도 천공 및 남아있는 우측 폐 팽창 부전 소견 보여 식도 일차적 봉합술 및 우측 잔존 폐절제술 시행하였다.

생후 4 개월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호흡부전 및 흡인성 폐렴으로 위식도 역류증에 대한 위저부주름술 시행하였다. 하지만 그 후에도 폐렴으로 인한 입원과 무호흡으로 인한 기도삽관 반복되었고, 생후 7 개월에 컴퓨터 촬영술상 폐절제술 후 증후군 소견 보여 흉강내 인공물질 삽입술 및 대동맥 고정술 시행 후 현재 증상 없이 입원 중이다.

(결론)

본원에서 폐절제술 후 증후군을 흉강 내 인공물질 삽입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